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5.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네(1)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斫來無影樹
물 가운데 거품을 태워 다 할지니라
燠盡水中漚
가히 우습다 소 탄 자여
可笑騎牛者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
騎牛更覓牛

향산에 계신 서산대사를 찾아갔다. 그날부터 시봉을 시키면서 <능엄경> 한 토막씩을 매일 가르쳐 주셨다. 매일 배우다보

건강선사 '소 타고 소를 찾는구나' 선화로 대중법문 20년만에 만난 서산대사 언하에 소요 스님 화찰대요

오늘날까지 당상의 대중법문으로 많이 회자되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하는 선화는 필자 역시, 오랫동안 무덤 머리를 괴롭혀 왔던 공안이었다. 이 선화로 대중법문하신 건강선사(田岡永信, 1988-1974)의 법문을 옮긴다.

소요(逍遙) 스님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자비하여 성품이라고 고을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다. 13세에 출가하여 부후대사 밑에서 일대시교를 통달하고 수백명의 학인 가운데 은곡(雲谷), 송월(松月) 스님과 더불어 법문삼검이라고 칭호를 받았던 17세의 소년 강사 소요 스님이 묘

니 삼년이 지나갔다. 소요 스님이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서산대사는 웬일인지 때 묻은 작은 책을 보시다가는 곧 안주머니에 넣고 했다. 소요 스님은 그 작은 책에 대하여 매우 관심이 많았다.

하루는 서산대사가 잡자는 틈을 타서 그 작은 책을 보려고 하니 서산대사는 깜짝 놀라 깨어나서 그 책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다. 그 작은 책을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단속이 심하고 또 아무런 법도 얻지 못하였으니, 더욱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소요 스

님 서산대사에게 하직을 고하니 그때야 비로소 서산대사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던 그 작은 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려고 하거든 이 책이나 가지고 가게" 하셨다. 서산대사가 주신 책을 펴보니 계송이 있는데, 바로 이 계송이 쓰여 있었다. 이 계송을 가지고 20년간을 참구하였으나 깨닫지 못하고 나이 40에 다시 묘향산에 돌아가서 서산대사를 뵈오니 감개가 무량하여 눈물이 활짝 쏟아졌다. 20년간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스승이 아니었는가.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공

부가 어떻게 되었느냐?" "떠날 때 주신 계송의 의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산대사께서 "가히 우습다 소 탄 자여,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 하시는 바람에 소요 스님은 언하에 화찰대요하였다. (건강선사법어집 언하대요)25-28) 소요 태능(逍遙太能, 1562-1649)의 시역시 당대의 많은 명사들로부터 선과 시가 배어났다고 칭송을 받았다.

있 지자 일천 산 조용하고
葉脫千峰靜

달뜨니 온갖 골짜기 빼어나다
月臨萬壑奇
산가의 말 끊긴, 이 현묘함
山家絕言妙
바깥사람 알지 못하게 하시오
勿使外人知 - 소요 태능

위의 계송 1행과 2행 '있 지자 일천 산, 조용하고/달뜨니 온갖 골짜기 빼어나다'는 선리적인 입장에서 쌍자쌍조(雙遮雙照)의 화염도리를 겹겹이 드러내고 있다. 1행에서 '있 지자'는 '막다 빼앗다의 차(遮)'의 표현이고, '조용하다'의 정(靜)은 '되비침, 조(照)'의 표현이다. 곧 '일천 산'이 있는 그대로 석가의 셋별처럼 드러난다. 그리고 2행에서 '달뜨다'는 조(照)의 이치이니, 곧 되비치니 '만학이 갑자기' 그 자태를 여시하게 드러낸다.

곧 선시의 모순적 어법 가운데 선시의 반상합도(反常合道)의 수사법이다. 3행과 4행 '산가의 말 끊긴, 이 현묘함/ 바깥사람 알지 못하게 하시오' 3행에서 보이는 '산가(山家)'는 숨어버리고, 도리는 들어나 묘(妙)로 표현되었으니 우리를 다시 한 번 뒤흔게 한다. 4행은 반어적 수사법인 아이러니다. 선사는 발가벗고 중요한 것을 만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다. 깨진 자에게는 답답함이 있다.

참어 : 별무기특이라, 하늘 별들이 아직 무사한가. 오늘도 어둠을 감아 먹는 너 정말 기록하구나.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신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16대추구기자차

비타민과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약재의 성분을 완충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과일보다는 약으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대추.

토실토실 알이 꼭 차오른 가을 대추는 특히 각종 여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 잘 재워둬다가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약이 되는 대추를 좀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 오게 하는 성분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연 수면제라고 할 수 있는 셈이지요. 대추 씨를 빼지 않고 통째로 삶아서 먹거나, 가루를 내어 물에 타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추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으로 예로부터 냉증 치료에 이용됐습니다. 말린 대추를 달여 먹으면 몸이 훈훈해질 뿐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되어 피부도 윤택해집니다. 냉이 많을 경우 한방에 서는 물 반통에 구절초 반 단과 대추 한 줌을 넣고 끓이 반으로 줄

여성 냉증 치료·수험생 긴장완화에 도움

블로장수식품으로 껌질만큼 효능 다양

우선 대추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

스로 인해 짜증이 늘고 우울해지는 병에는 대추가 좋은 약이 됩니다. 대추의 신경완화 작용은 긴장을 풀어주고 흥분을 가라앉히므로 수험생에게 좋습니다. 또한 대추는 비위(비장과 위장, 즉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 내장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을 앓는 사람과 체질상 소음인에게 적합합니다. 호흡기 질환에도 좋아 감기 예방을 위해 대추를 많이 섭취하기도 합니다.

아들 때까지 끓여 하루 세 번 1컵씩 마시거나 뒷물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만들어 볼 사찰음식은 '대추구기자차'입니다. 구기자는 '자신보간명목(腎補肝明目)'이라고 해서 간신을 자양하고 보하여 눈을 맑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 감증을 그치게 하므로 소갈증(당뇨)에도 좋습니다. 여름더위를 견디거나 여름을 지나면서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으면 좋은 대추구기자차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추구기자차

재료: 대추, 구기자, 감초, 꿀

만드는 법

- 1. 대추 3:구기자 1:감초 1/20 비율로 재료를 준비한다. 재료를 깨끗이 씻은 다음 물을 넉넉히 붓고 센 불로 한소끔 끓인 다음 약한 불로 서서히 끓인다.
2. 졸인 물이 커피색으로 우려나오면 대추를 젓가락으로 찢어보아 쉽게 들어가면 꿀을 넣고 단맛을 만든다.
3. 꿀이 어우러지도록 한 번 더 끓인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며 차게 먹을 수 있고 대추를 뜨겁게 먹는다. 대추와 구기자는 입안에 넣고 터뜨려서 꼭꼭 씹어 먹고 입안에 남은 껌질만 뱉어낸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고두현 | 랜덤하우스중앙, 2005 | 6천원



불교·진리 '그리움의 대상'으로 형상화

고두현은 1963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다.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하고 첫 시집 <늦게 온 소포>와 두 번째 시집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를 냈다. 추상적 인식과 진리를 '당신'이나 '너'로 은유하여 대상화하는 그리움이 가득한 그의 시집에는 불교 제재 시들이 여러 편 보인다. 이를테면 '별에게 묻다'에서는 '남해금산 보리암/ 절벽에 빗금 치며 꽃치는 별빛/ 좌선대 등배 끝으로/ 새까만 숲막 타고 또 타서/ 생애 단 한번 피고 지는/ 대꽃 피울 때까지// 너를 기다리며/ 그림자 그림자며' 대상인 '너'에 대한 아름답고 강렬한 그리움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마음의 액자'에서는 "눈에 멀수록 더 가깝고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면서 "어느 날 문득 내게로 오는 것이/ 돈

오돈수(頓悟頓修)의 유리 거울이라면/ 풀잎없이 가 닿기 위해 / 나를 벗고 비우는 일/ 원근보다 더 애달픈 사람이 라는 길/ 마음속의 액자 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오늘"이라고 한다. 아래 인용한 '부석사의 불발'에서는 그리움의 대상인 '당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형상화했다.

무량수천 배울람기둥
가만히 손 대고 눈 감았다
일천이백년 전 석등이
저 혼자 타오르는 모습 보았습디다.

하릴 여기까지 와서
살날강은 빛 한줄기
약간 비껴선 채
제 몸 시르느 것이

오로록 오래 불씨 보듯고
비위 속 비추던 석등
있 다 떨구고 대롱만 남은

당신의 자애였나오. - '부석사의 불발' 전문 여기서 석등으로 은유된 '당신'은 부처나 진리라는 것을 확연히 알아차릴 수 있다. 장차자는 불발 부석사 여행에서 만난 석등을 통해 부처의 진리가 사찰 창건 당시 전통(傳燈)되어 타오르는 것을 회상하고, 바위 속에 오랜 불씨를 보듯고 불법을 전승하고 있는 석등을 부처의 진리와 비유하고 있다.

'지평선 가까이 있는 달이 커 보인다?'에서는 사물이 크거나 작게 보이는 것은 거리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면서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만큼의 거리를 알고 나면/비로소 참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낙산 일몰'에서는 일몰의 반복과 집적을 통해 붉게 타오르는 일출을 상상하고, '반신-오층석탑, 동쪽'에서는 석탑이 "깊은/산그늘// 혼자 밝히려려고" 제 몸을 깎아서 뼈를 쌓았다

고 한다.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호수에 거꾸로 비추고 서 있는 자작나무 겹질을 벗기면서 "팔만대장경이 따뜻하게 익고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한다. 아래 인용한 시는 사투리를 섞은 구어체와 "건강비결? 평생 놀았지"라며 기대 배반을 통해 재미를 준다.

개심사 인구 세심동에
어린 할아버지 한 분.
지난 팔월에 팔순잔치 했게
여섯살 한 십년
취나물이며 은쟁반 말린 거며
커피 사방면 같은 거.
매체에 나간 적 없었
함께는 일흔 다섯, 살림하
건강 비결?
평생 놀았지 센 일 안 했어
한량아여

아취나물 안 살거? - '개심사에서' 전문

장뇌산삼재배 새로운 임야재테크
국내 최대 장뇌산삼 재배단지인 "장생고려산삼영농조합"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고소득 특화품목" 우수종자·종묘의 선별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종자·종묘의 보급
1. 우수종자·종묘의 보급
2. 행정절차의 지원
3. 재배기술의 지원 및 교육
"장뇌삼"(산양삼)
- 신령상 특화품목으로 선정
- 농가에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전라품목으로 집중육성
장생고려산삼 영농조합법인
장생산삼연구소 장생산삼박물관
365일 운영장터는 농민24시간 상담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www.kjinseng.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경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이트강판, 사철(대웅전, 오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www.wonjulife.co.kr
원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2.56%
녹색채소, 당근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원주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채식식 2개월분 90,000원
원주발아생식 2개월분 80,000원
원주홍선식 2개월분 90,000원
히말라야 석청 1kg 300,000원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았습니다!